

\* 마을사 \*

## 시전리·柿田里

도고면의 한 마을로 동막골, 중뜸 그리고 양지뜸으로 나뉘어 있고, 가구수는 총 205가구로 마을 주민의 99%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시전리에는 도고중학교, 도고 온천 초등학교가 있고, 본래 신창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감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감밭 또는 시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티리 일부를 병합하여 시전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시전리 위치도>



### ☒ 동막골, 중뜸, 양지뜸 (시전리)

시전1리는 동막골, 갈티, 대문안 마을로 나뉘며, 동막골은 동쪽으로 높은 도고산이 장막을 친 것처럼 막혀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갈티는 갈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되었으며, 대문안은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이며, 전에 큰 부자가 담을 넓게 둘러치고 대문을 달았는데 그 안쪽이 마을이 되었다.

시전2리는 중뜸 마을이라 하며 감밭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시전3리는 산밑 가양리, 갯리, 양지뜸으로 형성되었으며, 양지뜸은 감밭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되었고, 산밑 가양리는 산 밑에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유래되었다.

### 十 성준경 가옥(成俊慶 家屋)

건축물은 1984년 12월 24일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 528번지에 있는 성준경 가옥은 중요 민속자료 제 194호로 지정되었으며,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특색을 지닌 기와집으로 안채, 사랑채, 고방채로 구성되어 있고, 수림(樹林)으로 둘러 싸인 진입로 입구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무지개처럼 휘어진 소나무 등걸이 대문을 대신하고 있

는 등 집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가 짝차 있다. 특별한 정원 시설은 하지 않았으나 지형을 이용하여 적당히 축대를 쌓아 전통 가옥에서 흔히 보는 매화(梅花), 비자, 소나무, 향나무, 감나무 등을 울창하게 심어 외부공간을 아름답게 꾸몄다. 이 건물은 시전 1리에 위치해 있다.

<조사당시 시전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동막골 마을은 위도 36-44-00, 경도 126-53-30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과 도고를 잇는 도로변을 따라 가면 신창휴게소에서 1.5km 정도를 내려오면 향산리 마을이 보이고 이 마을에서 500m 떨어진 마을이다.

중뜸 마을은 위도 36-45-00, 경도 126-53-10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과 도고를 잇는 도로변을 따라 가면 신창휴게소에서 1.5km 정도를 내려오면 향산리 마을이 보이고 동막골 마을과 양지뜸 마을 중간에 위치해 있다.

양지뜸 마을은 36-44-40, 경도 125-54-00에 위치해 있으며, 온양과 도고를 잇는 도로변을 따라 가면 신창휴게소에서 1.5km 정도를 내려오면 향산리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양지뜸 마을이다.

2) 현황

동막골 마을의 인구를 보면 남 92명, 여 99명으로 총 191명에 이르며 호구수는 64호가 살고 있으며, 농업을 전업으로 삼고 있다.

중뜸 마을은 총인구는 206명으로 남 109명, 여 97명에 이르며, 호구수는 58호가 살고 있고, 농업을 99%, 축산업을 1%에 종사한다.

양지뜸 마을은 총 248명으로 남 126명, 여 122명으로 호구수는 83호에 이르며, 농업을 100%에 종사한다. 특용작물로는 동막골 마을과 중뜸 마을은 담배를 재배하고 있다.

- 인구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동막골 마을	191명	92명	99명
중뜸 마을	206명	109명	97명
양지 마을	248명	126명	122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동막골 마을	100%	100%	-
중뜸 마을	100%	99%	1%
양지뜸 마을	100%	100%	-

동막골 마을은 경작지가 논이 34ha, 답 14.5ha로 조사되었고,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건조기등 조사되었고,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앰프를 갖추고 농약기구를 구비하고 있다.

중뜸 마을은 논 22.7ha, 답 11.7ha로 조사되었고, 시전리 중 농경지가 가장 적고,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고 관리기, 이앙기등 각종 농기계를 조금씩 보유하고 있고 문화시설로는 앰프시설을 갖춘 마을회관이 1개소 있고, 그것은 농약기구가 비치되어 있다.

양지뜸 마을은 논 30.2ha, 밭 16.5ha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경운기가 가장 많지만 농경지 보유에 비해 농기계가 적은 편이며, 앰프시설을 갖춘 마을회관이 2개소 있고, 농약기구도 갖추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답
동막골 마을	48.5ha	34ha	14.5ha
중뜸 마을	34.4ha	22.7ha	11.7ha
양지뜸마을	46.7ha	30.2ha	16.5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동막골 마을	1개소	1개소	-
중뜸 마을	1개소	1개소	-
양지뜸 마을	2개소	2개소	-

동막골 마을의 성씨별 현황을 보면 남씨, 정씨 각각 14%, 박씨 13%로 나타나며, 연령층은 40대에는 가장 많다.

중뜸 마을은 이 마을 역시 남씨 24%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김씨, 이씨, 박씨, 광씨 등이 나타난다.

양지뜸 마을은 성씨별 현황을 살펴 보면 남씨가 20%로 나타났으며, 이씨 14%, 김씨 23%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은 4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남씨	정씨	박씨	곽씨	기타
동막골 마을	64호	6호	7호	9호	9호	8호	-	25호
중뜸 마을	58호	7호	4호	14호	-	4호	8호	21호
양지뜸 마을	83호	19호	12호	17호	3호	1호	-	31호

- 최고령자

동막골 마을은 88세의 박종완 할아버지가 최고령이시고, 중뜸 마을은 금년 89세의 김 득 레 할머니이며, 양지뜸 마을은 김세환씨로 90세이시다.

**3) 자연경관**

동막골 마을은 화려하고 웅장한 도고산이 있으며, 인접지역에 도고저수지가 있으며, 동막골 위쪽에는 석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동막골 300m 지점에 시전리 절터가 있었는데 이 절터는 이조시대에 건립된 절터로 보고 있으나 지금은 5년전에 없어졌다고 하며, 약 360년 정도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약 32m, 둘레는 5.5m 정도가 된다

중뜸 마을은 시전1리와 시전 3리 중간에 위치하는 감발 중앙에 있는 마을이며, 뒤쪽으로 도고산이 둘러 싸여 있으며, 마을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다.

양지뜸 마을은 도고중학교, 도고온천초등학교등의 교육기관과 도고 저수지 및 도고산이 함께 어우러져 경관이 화려한 마을이며, 도고 주유소가 국도 21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릇점이 있다.

**4) 마을변천과정**

시전리는 원래 신창군 남성면의 지역으로서 감나무가 많이 있었으므로 감발 또는 시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티리 일부를 병합하여 시전리라 하여 아산군 도고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동막골 마을은 박씨와 남씨, 김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마을에서 오래 살고 계신 할아버지는 박씨로 4대째 살고 있으며, 조선시대 성준경 가옥 앞에 은행나무가 약 360년 정도라 하니 마을의 형성년대는 서기 1600년경 약360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중뜸 마을은 한양 조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으며, 다음으로 이씨가 터를 잡았고, 현재 의령 남씨가 그뒤로 살았다.

양지뜸 마을은 의령 남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고 하며, 현재 8호가 살고 있으며 남씨는 지금 16대이라는 것을 보면 서기 1500년 경 약 500년전에 형성된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며, 현재 공장이 세워져 있던 터가 남씨의 집터였다.

**6) 지 명**

十 동막골 마을의 지명

·대문안 : 동막골 맞은 편에 있는 마을로 전에 큰 부자가 살면서 담을 넓게 둘러치고 대문을 달았는데, 그 안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대문안이라 함.

·동막골 : 감발 남쪽에 있는 마을로 동쪽으로 높은 도고산이 장막을 친것 같다하여 동막골이라 하였음.

·석적골 : 동막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

·갈티 : 대문안의 북쪽. 갈티고개 사이에 있는 마을.

- 노적봉 : 대문안 뒤에 있는 산. 모양이 가리와 같음
- 갈티고개 : 감밭에서 예산 사거리로 가는 큰 고개
- 시전리절터 : 동막골 300m 지점에 있으며, 이조시대에 건립된 절터로 보임.
  - 중뜸마을의 지명
  - 중뜸 : 감밭 중앙에 있는 마을
- 감밭고개 : 감밭에서 신유리로 넘어가는 고개. 도고저수지를 돌고 있음.
  - 석양들 : 감밭 옆에 있는 들.
    - 양지뜸 마을의 지명
- 산밑 가향리 : 중뜸 북쪽에 있는 마을로 향산리에 있는 별가향리에 상대되는 산 밑에 되며, 산 밑에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유래됨.
  - 양지뜸 : 감밭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
- 옥담불 : 도고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며, 옛 옥의 터가 있다 함. 죄인들을 가두는 옥이었으며, 옥담부리에 있다하여 옥담불이라 하며. 주변으로 죄인을 묻었던 무덤이 많았으나 지금은 밭으로 사용됨.
- 남씨터 : 감밭 양지편에 있는 남씨의 터로 중종때부터 의령 남씨가 살고 있음. 지금은 공장에 들어서 있음.
  - 버덩(망덕) : 나무는 없고 숲과 잡풀만이 우거진 놓고 평편한 곳.
  - 성황당 고개 : 갈티에서 감밭으로 넘어가는 고개. 성황당이 있었음.
- 감밭고개 : 지금은 교통로로 이용됨. 감밭에서 신유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도고 저수지를 감돌고 있음.
  - 점촌 : 산밑 가향리 서쪽에 있는마을. 질그릇점이 있음.
- 목당날 : 신유리의 도고 저수지 왼쪽에 있는 산부리. 방씨의 무덤이 있는데 지사의 말이 " 이곳에 배가 뜨면 망할 것이다"하였는데 과연 도고 저수지를 뿜느라고 이곳을 파매, 무너의 돌이 나왔음.
  - 망덕 : 양지편 끝에 있는 버덩.
  - 꽃무늬돌 : 목당날에 있는 돌. 돌에 무늬가 있는 거시 특징임.
- 말 무덤 : 망덕 아래쪽에 있는 말의 무덤. 임진왜란 때 교위 남 국걸이 경기도 삭령에서 전사하였는데, 그 타던 말이 그 의관을 물고 고향인 이곳으로 와서 죽었으므로, 의관장으로 망덕위에 묘를 쓰고, 그 밑인 이곳에 말을 묻었음.

## 7) 전 설

### · 은행나무에 대한 전설(동막골 마을)

동막골 마을에는 약 360년 정도가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약 32m, 둘레는 5.50m 정도가 된다고 한다. 한번 이 나무를 베려고 하다 이 나무가 슬피 소리내어 울어서 이 나무를 베지 못했다고 전하여 내려온다.

### · 고육대골에 얽힌 전설(갈티마을)

지금의 예산에서 온양으로 통하고 농은리에서 도고면 소재지로 통하는 사거리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고을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 이조 중기때에 어느 임금님이 정사를 살피기 위하여 평민으로 암행할 적에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촌보를 옮기지 못하고 지금 「갈티」라는 곳에 객사를 정하고자 어느 집 대문을 두드리니 촌부가 나와 맞이하는데, 하루를 묵어갈 수 없느냐고 묻자 촌부가 이르되, 집은 누추하나 하룻밤 여장을 풀고 가시라 하여 그날 저녁을 촌부와 함께 이런 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촌부가 이르되 이곳에는 고씨 가족이 육대에 걸쳐 화목하게 사는데 우리 마을에서는 고씨 가족이 큰 자랑거리라고 한 즉, 임금님이 이튿날 고씨 집을 찾아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 즉, 주인은 아무 말 없이 큰 집 후원으로 객을 인도하여 청결한 별당이 있는 곳에 안내하였다. 그곳에는 커다란 독이 6개가 있었다. 주인은 객을 인도하여 독 뚜껑을 열어 보이니 그 독 속에는 종이가 가득히 차 있었

고, 그 종이마다 "참을 인(忍)"자가 씌어 있었다. 임금님이 그 사유를 물을 즉,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살아가자면 좋은 일 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 괴롭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 "忍"자를 써서 참고 화목하게 조상 대대로 살아 오면서 조상 대대로 써 내려 온 " 참을인(忍)"자를 독에 넣어서 이렇게 간직해 왔노라고 하니 임금님께서서는 그 연유를 들으시고 한양으로 올라가 고씨를 불러 상과 벼슬을 내리셨다는 전설이 있어 그 마을을 「교육 대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 十 말무덤 전설 (양지뜸 마을)

교관 남 국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모님께는 효성이 지극하여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성격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병정 놀이를 할 때에도 언제나 대장 노릇을 했고 놀이를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은 으레 정말 대장인 것 같이 받들었다. 또한 그는 항상 무예를 닦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참 무예를 익히고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떠나고 다른 모든 군관들도 모두 달아나는 판이니 그를 본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관군들은 싸움마다 패하여 갔다. 벼슬이 높지도 못한 남 국걸은 왜군이 쳐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왜군이 쳐들어오고 있었다. 이를 본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싸울 기색이 없어 보였다. 이때 남 국걸은 활을 쏘며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자 다른 군사들도 사기를 되찾고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나 적군은 이쪽의 10배가 넘어 보였다. 그리하여 남국걸은 왜군을 전부 무찌르지 못한 활을 남기고 죽어 갔다. 남 국걸은 부모님께 보름마다 집에 들러 인사를 드렸었다. 그런데 소식이 끊기자 고향에서는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남 국걸이 타고 다니던 말이 그가 싸움터에서 죽자 그의 의관을 묻고 고향으로 달려 갔다. 그러나 어찌나 빨리 달려 왔는지 그만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남 국걸의 의관을 거두고 것처럼 주인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말을 묻어 주었으며 그곳이 말무덤인데 지금은 망덕 아래 약간의 흔적이 보이고 있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동막골 마을은 애경사시 청년회를 소집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며 도와주고 있으며, 중뜸 마을은 마을회관에서 매년 2회씩 노인 효도 잔치를 청년회와 부녀회장과 이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농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아 보쌘이나 침목계, 쌀계등이 많이 했었으나 현재는 다 도시로 나가서 그 많던 모임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 十 남국걸(南國傑: 이조)

본관은 宣寧, 直提學 簡의 후예이다. 진사에 올라 勇校尉가 되었고 임진왜란때에 의병장으로 朔寧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아산군 도고면 시전리에 虛葬하였다. <朝鮮纂輿勝覽>

##### 十 남국신(南國信: 이조)

자는 사립 본관은 宣寧, 국걸의 아우이다. 임진외란에 위로는 나라를 위하고 아래로는 형을 위하여 원수 갚을 것을 스스로 맹세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순국(殉國)하니 이 순신과 이산해가 그를 칭찬하여 「충의당(忠義堂)」이라 하였다. <朝鮮纂輿勝覽>

#### 10) 종교현황

동막골 마을에는 종교적인 것이 없고, 중뜸 마을에는 감발 장로교회에는 신도수가 50명이 되고 시전감리 교회에도 신도수가 45명으로 조사되었다. 양지뜸 마을에도 종교단체가 없다.

#### 11) 공장현황

동막골 마을에는 공장이 없으며, 중뜸 마을에는 관옥식품이라는 곡물제조 공장과 정품개발이 있고 양지뜸은 고철가공처리 공장과 범랑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力 관옥식품 : 시전424-6 허가일 97.5.30. 면적5,995 종업원수 8명 곡물제조식품

力 정품개발 : 시전 253. 허가일 94. 6. 20. 면적 8,825. 종업원수 4명,

力 유진범랑 : 시전 346-18, 허가일 91. 9. 3. 면적 3,829 종업원수 35명 범랑제품

力 아산철강 : 시전 350-3. 허가일 95. 5. 11. 면적 3,611. 종업원수 8명, 고철가공

## 12) 마을의 특성

동막골 마을은 360년된 은행나무가 있으며, 성준경 가옥이 마을의 상징물로서 남아있고, 도고 저수지가 인근에 있어 농사에 이용하며, 도고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하고 시골정서가 남아 있는 마을이다.

중뚝 마을은 오래된 팽나무가 있는데 300여년 정도 되었다고 하며 담배를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1968년에 김 양호씨가 담배를 처음 들여와 지금은 30여호가 재배하고 있다.

양지뚝마을은 도고중학교, 도고온천초등학교등 교육기관과 도고 저수지 및 도고산이 함께 어우러져 경관이 좋은 마을이며, 농업을 100% 종사하고 있는 마을로 서로 단합이 잘 되는 시골 마을이다.